

# ‘도정 방향성 성장·도민소득 재정립’

이원택 도지사, 첫 합동간부회의서 “체감성장 기반 사업 도민 소득·성장귀결성·인구 영향성 검토” 강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실·국장과 도내 신하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민선 9기 출범 후 첫 합동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도민 안전 확보와 전북 경제생태계 강화에 도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먼저 도정 전반의 사업 방향성을 ‘성장’과 ‘도민소득’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궁극적으로 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전 도민의 소득 증대와 성장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각 사업에 성장사다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 생태계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우리는 도민주권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이대로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홍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그는 “산간지역과 급경사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은 물론, 농배수로 정비 등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실·국장과 도내 신하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민선 9기 출범 후 첫 합동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도민 안전 확보와 전북 경제생태계 강화에 도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중앙 공모사업 선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는 점을 꼽으며 “실·국과 신하기관은 철저한 대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자체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실·국과 신하기관은 도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충과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도내 유무형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이 지사

는 “익산 폐석산 등 도내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입법 검토에 즉각 착수하라고” “도내 거주하는 인적자원인 전·현직 국가대표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 차원의 연계 사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의료 공백 방지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도 주문했다. 권역마다 의료센터 상황을 짚으며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핵심 의료 인력을 적극 설득하

고 필수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이라는 도정 비전과 운영 방향이 도, 시군, 그리고 출연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파되고 즉각 가동돼야 한다”라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을 조속히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시민과 함께 더 큰 미래 열 것”

조지훈 전주시장, ‘시민 존중’ 등 4대 시정 목표 제시

민선 9기 전주시를 이끌고 있는 조지훈 전주시장이 7월 1일 취임 후 당일 시청 출입구 개방에 이어 4대 시정 목표를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시민 주권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시장은 ‘시민 존중 도시’, ‘SI 특별 도시’, ‘시민 돌봄 책임도시’, ‘아시아 5대 문화 산업 도시’를 4대 시정 목표로 제시하며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고 더 큰 전주의 미래를 위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시청 청사 앞에 내걸고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들겠습니다’라며 ‘시민과 함께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선 9기 조지훈 시장의 4대 시정 목표를 바탕으로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하나 되어 전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장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녹색도시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다. 도시 곳곳을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와 안전망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전주, 더 큰 전주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뛰겠다”며 “전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시민 모두의 참여와 성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정을 통해 ‘시민주권 사회’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오만호 기자

## 시민 안전·민생경제·미래성장 ‘동시에’

전주시, 인프라 구축·여름철 재난안전대책 등 공개

전주시가 민선 9기 조지훈 시장의 시정 비전의 본격적인 실행과 여름철 시민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발표하며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 실현에 속도를 낸다.

전주시는 6일 오전 시청 주요 업무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선 9기 공약 추진 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인프라 구축, 복지 확충, 여름철 재난 안전 대책 등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민선 9기 비전과 88개 공약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9일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를 거친 뒤 전문가와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시민 공약 평가단의 자문을 받아 10월 최종 실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의 98.7%

인 약 45만 명에게 총 904억 원이 지급됐으며, 하반기에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된다. 민경강과 백석제를 연결하는 10.3km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 공사를 발주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복지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된다. 총사업비 764억원이 투입되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인 중화산동 소재 예수병원에 착공돼 150병상 규모의 전문 재활 치료시설로 조성된다.

여름철 재난 대응체제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급경사지 28곳과 우수받이 2만,000여 개를 사전 점검했으며, 침수 우려 지

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보전소는 11월까지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방제를 위한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시민들의 여름 휴식 공간도 마련된다.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주 월드컵 광장에 야외 어린이 놀이장을 운영하며, 누전차단기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정책도 확대된다. 시는 10일부터 2026 인구 혁신 프로젝트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해 우수 제안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문화사학자 신정일의 장서를 활용한 ‘제1호 전주시민서거’를 운영해 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 공무원들은 매주 수요일 캐주얼 데이를 운영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제10대 고창군의회 개원식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는 6일 본회의장에서 고창군수(심덕섭)를 비롯하여 역대 의원, 도의원, 언론인, 각종 기관사회단체장 관계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고창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원식은 지난 1일 제10대 고창군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1일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여 원구성을 마친데 이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출발과 각오를 다지고자 이루어졌다.

박성만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10대 전반기 고창군의회는 군민중심, 현장중심 실천하는 의회”를 의정구호로 정하고 첫째로 군민의 삶을 의정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군민 중심 의회를 만들어서, 조례 하나, 예산 하나를 심의할 때 군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가를 가장 먼저 묻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도 세부적인 정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보안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업무 스타일이 앞으로 전북도정 운영에서도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예산에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현장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작은 문제도 끝까지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도정이 운영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도민들도 이전과 다른 차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북의 경제 체질에 대해 대전환의 방대한 과제를 정리해야 했던 인수위원회의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인수위원들뿐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함께

민주 안호영 의원, 완진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을 차례로 방문해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완진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각 군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예산 사업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정과 의회, 국회가 함께 대

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예산정책협의회는 7월 7일 완주군청을 시작으로 8일 진안군청, 9일 무주군청에서 각각 열린다.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 사업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진안에서는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등 지역 성장 기반과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된다.

무주에서는 무주군 특화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등 미래 먹거리와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오만호 기자·진안=유태만 기자

### ‘도민 체감 실질 성장’ 설계... 김동열 서울대 행정학박사

## “숫자가 아닌 실질 성장·삶의 변화 만들어야”

이원택 도정 인수위 체감성장 분과장 맡아 경제분야 도정과제 도출·4년 청사진 마련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을 책임질 4년 청사진을 설계할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동열 박사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투자 유치 실적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 성장과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체감 성장 분과장을 맡은 김 박사는 인수위원회의 지난 20여 일 동안 사실상 밤낮없이 인수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작업하며 향후 4년간 전북 발전의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그는 “체감 성장 분야의 역할은 경제 분야 도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최종 보고서 제출까지가 우리의 임무였고, 이후 인수위원회 백서는 별도의 태스크 포스(TF)가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1965년 순창군 동계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재학 중 전주로 전학한 뒤 풍남초등학교와 해성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경제정책을 전공해 행정학(경제정책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정책 전문가다.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표 경제연구기관에서 경제정책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정동영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과 이현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정책 현장 경험까지 두루 쌓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계와 실제 경제정책 현장을 체험한 경제정책 전문가이다.

김 박사는 이번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한 것은 ‘도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제’에 방점을 두고 활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도 나후된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투자와 다른 투자까지 포함하면 27조 원으로 투자 규모는 훨씬 커졌지만, 실제 집행률은 4%도 안 되어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 유치 금액만 크게 발표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투자 실행과 좋은 일자리, 소상공인과 기업의 성장, 생활 속 변화처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새 도정을 이끌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강점으로 비테일과 집요함을 꼽았다.

그는 “이원택 지사는 시민사회 활동과 지방의원, 전주시장 비서실장,

전북도지사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 청와대 행정관, 전북도 경제부지사, 재선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전북 발전의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현재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로 복귀해 객원 연구원으로서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북 발전을 위한 역할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는 앞으로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인 체감 성장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전북도의 경제정책 자문을 할 계획이다.

김 박사는 특히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 인구에 추진 중인 국제금융센터가 조속히 건립되고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사일 안에 유치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인재들의 취업 기회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만큼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오만호 기자